

정성어린 사랑의 마스크

니시고베조선초급학교 유치반 학부모
김구미

민족교육의 화원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바라며 올해 봄 우리 아들은 니시고베조선초급학교 부속유치반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나타난 신형코로나비루스때문에 우리 유치반에 못 다니게 되어 서운한 마음으로 날마다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 집을 방문하신 학교선생님을 통하여 녀맹 니시고베지부가구라이계다분회에서 마련해주신 사랑어린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 입원생들을 위하여 정성담아 만들어주신 마스크였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학교를 위하여, 학생, 어린이들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리 조직과 동포들.

사랑의 마스크를 통하여 조직의 고마움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비록 만나지 못해도 얼굴을 보지 못해도 동포들은 하나로 이어지고있다고 생각하니 지금의 어려운 생활도 꼭 이겨낼수 있을것입니다.